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롬 7:1-3]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淫婦)[음란한 여자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음란한 여자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은 결혼의 비유를 들어 성도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증거한다. 남편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음란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쪽이 죽었으므로 그와의 부부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율법의 의(義)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목적은, 부활하신 주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인격과 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구원 얻기 전의 상태를 가리키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죄의 정욕이라는 뜻이라고 본다.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는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였고 죄의 정욕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몸의 기관들에 역사해 우리로 사망에 이르는 행동을 하게 했다. 간혹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무시되고 변명으로 무마되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엎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성령](NASB, NIV)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儀文)[율법 조문의] 목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엎매였던 것’이라는 말은 율법의 규례들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바울은 6:14에서도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였다. 또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강조하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간헐으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였고(3:23, 25),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했다(5:1). 바울은 그 책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죄와 방종에 떨어지게 하는 자유가 아니다. 그 자유는 율법의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의와 거룩을 행하게 하기 위한 자유이다. 의롭고 거룩한 삶, 이것이 구원의 방향이다. 구원은 죄로부터 건져내어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에 6:15에서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갈라디아서 5:13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였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라는 말에서 ‘영’이라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며(NASB, NIV), ‘의문(儀文)’이라는 말은 ‘글자’라는 뜻으로 율법의 조문을 가리킨다고 본다(고후 3:6도 비슷함).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옛날처럼 율법 조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

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성도에게 성화를 위한 큰 힘이 된다. 때때로 성도에게 죄와 연약이 있으나 그가 낙심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이 자유가 큰 힘이 되는 것이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제까지 말한 내용이 율법을 정죄(定罪)하는 인상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이 죄인가?’라고 묻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다.

[8-11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죄가 율법으로 기회를 타서 우리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 같고 죄가 죽는 것 같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악된 성질과 행위들이 드러난다.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나 자신의 존재가 살아 있는 것 같았으나, 율법이 이를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는 것이 드러났다.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다면 율법을 통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나,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고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이 심히 죄악됨을 깨달을 뿐이다. 영생에 이르게 할 율법이 실제로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는 율법으로 기회를 타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고 죽게 하였다.

[12-13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자체는 죄악되지 않다. 율법은 실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14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신령하다고까지 말한다. 그는 디모데전서 1:8에서도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고 말했다. 율법은 바른 정신으로 사용하면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선하고 유익하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을 수 없다. 단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선한 율법으로 우리를 죽게 한 것이다. 이로써 죄가 심히 죄악됨을 드러낸 것뿐이다.

[14-1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게되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속에는 선악간의 싸움이 있다. 바울은 ‘나는’ ‘나의’ ‘내가’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적 싸움을 표현한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 속에 있는 선악간의 싸움이다. 성도에게는 육신의 연약성 곧 죄성(罪性)이 남아 있다.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행치 못한다.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이다. 나는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려 있고 때때로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16-17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율법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의 선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는’이라는 말은 6절이나 8:1에도 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를 가리킨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라는 말은 구원 얻은 성도에게 있어서 범죄의 주체는 참된 자아가 아님을 증거한다. 구원 얻은 성도의 참된 자아는 ‘속사람’(22절) 혹은 ‘새 사람’(엡 4:24)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구원 얻은 성도의 참된 자아는 의와 생명 안에서 살려 하지만, 성도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 율법을 거슬러 죄를 짓게 한다.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참된 자아의 행위가 아니고 자신 속에 남아 있는 죄성의 행위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범죄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는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18-20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육신’이라는 원어(사르쿠스)는 ‘몸(소마)’이라는 말

과 동의어로 사용되며, 성도의 남은 죄성은 육신 즉 몸
에 있다고 보인다. ‘원함이 내게 있다’는 말은 구원 얻
은 성도의 참된 자아는 의와 선을 원함을 나타낸다. 이
것은 새 사람의 소원이요 중생한 영혼의 변화된 성향
이다. 구원 얻은 사람만 이러한 소원을 가진다. 구원
얻기 전에는 이런 소원이 없었고 단지 때때로 양심의
가책 정도가 있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구원 얻은 후에
도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 이것이 성
도에게 남아 있는 죄성과 연약성인 것이다. 선을 원하
는 것은 참된 자아요, 선을 원치 않고 악을 행하는 것
은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이다. 그것이 우리 몸에 남은
옛 사람의 성질인 것이다.

[21-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
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
른 법이 내 마음(누스)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
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성도는 자신 속에 두 가지 모순된 성향이 있음을 깨
닫는다. 하나는 참된 자아의 소원으로서 선을 행하려
하는 성향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몸 속에 남아 있는
죄성으로 악을 행하려는 성향이다. ‘속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의 참된 자아를 가리킨다. 중생한 참 자
아는 ‘마음(누스) 곧 생각(mind)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다른 한 성향이 있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온다. 성도 속에는 이 대립된 두 가지 성향이 있어 항
상 내면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24-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생각
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탄식은 성도들의 탄식과 신음이다. 마음의
성향과 육신의 성향의 싸움으로 성도는 피곤해진다.
성도는 당연히 이 죄와 사망의 몸으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하게 된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과 성화는 이러한 싸움과 탄식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죄에 대해 점점
죽고 의에 대해 점점 산다. 하나님의 구원은 효력이 있
고 승리적이다. 비록 구원 얻은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
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지만, 성
도들이 탄식과 신음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
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의롭다 하심 때문이다. 성도는 이
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義

人)으로 인정받았다. 성도는 때때로 죄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의를 이미 얻었고 최종적 구원과 영
생도 보장되어 있다(롬 8:30; 빌 1:6). 이 최종적 구원은
영육의 완전한 구원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
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
속의 죽음을 죽으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책과 형벌을 담
당하셨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
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
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조문에
따라 행하지 않고 율법의 공포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
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담대히 의와 거
룩을 행한다.

둘째로, 그러나 우리의 육신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
다.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이 남은 죄성으로 말미암는 내
면적 싸움이 항상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17에서 “육
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
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다. 우리는 때때로 바
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24절) 하고 신음하며 탄식한다.
그러나 성도는 탄식과 신음 속에서 점점 거룩해져간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미 얻
은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 됨과 천국 기업
의 보장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
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과 자유 속
에서 의와 선과 사랑을 힘써 행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모세를 준비시키심

[출 2:1-4]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
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
함(토브)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길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
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출생과 어릴 때의 이야기이다. 모세의 부친
은 레위인이며 그의 모친도 레위인이었다. 그가 출생
할 즈음에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버
리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져 있던 때이었다(1:22). 그의
부모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다(히 11:23). 그의 모친
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행하며 그 아이

를 역청과 나무 진으로 안을 칠한 갈대 상자에 넣어 나 일강에 버렸다. 그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위탁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이다.

[5-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河水)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기하게 이루어졌다. 그 공주는 그 상자를 보았고 열어 그 아이를 보았다. 삼 개월된 그 아이는 공주를 보고 울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공주에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

[7-10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값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그의 종 모세를 건지셨고 살리셨고 경건함으로 양육받게 하셨다. 모세의 어머니는 안전하게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말씀과 기도로 키웠을 것이다. 그 아이는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로 인도되고 그의 아들이 되었다. 그는 바로의 궁중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것이다. 스테반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말했다(행 7:22). 그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다. ‘모세’라는 원어(모쉐)는 ‘건져내다’는 뜻을 가진 단어(마쉬)에서 나온 것 같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비하고 신기하다.

[11-15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은 퍼졌고, 바로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공주의 아들이었던 그는 한 순간에 지명수배자와 도망자가 되었고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 머물렀다.

[16-17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버지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모세는 양치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도왔다. 그에게는 정의감과 선한 동정심, 즉 건전한 인격의 기본적인 요소인 도덕성이 있었다.

[18-20절]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 딸들의 아버지인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은 은혜에 보답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바르고 선한 마음이 있는 자이었다.

[21-22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딸 심보라(철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이들을 낳을 때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솨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였고, 르우엘은 그의 딸 철포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가 이들을 낳았고 모세는 그 이름을 게르솨이라 부르며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고 말했다. 후에,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80세이었으므로(출 7:7), 그가 미디안 광야에 거한 세월은 약 40년간이었다(행 7:29-30).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믿음과 겸손과 인내를 훈련시킨 학교이었다. 출애굽 후 40년의 광야 생활이 실전(實戰)과 같은 삶이었다면, 미디안 광야 생활은 그것을 준비하는 학교이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지없이 실패했던 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자, 살인자, 도피자인 그를 들어 쓰시려고 거기서 그를 훈련시키셨던 것이다.

[23-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모세의 출생과 생명 보존과 양육은 하나님의 신기한 섭리 안에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이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바라야 한다(롬 11:36).

둘째로, 모세는 내가 해보겠다고 할 때 실패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도피자인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셨고 준비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위해 일꾼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응답으로, 그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그의 성실한 이행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하신 때 그의 일을 이루신다.